

肝 癌

鄭煥國 (카톨릭醫大教授)

간암은 일단 걸리면 치료하기가 무척 힘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간암은 얼마전까지만 해도 치료대상에서 제외되어왔다. 그러나 이같은 간암도 최근 내과의 외과적인 치료가 시도되고 있으며 이제 학문적 흥미를 벗어나 실제의 생명연장에 많은 實效를 거두게 됐다.

血管분포를 비롯한 병태생리면의 구명, 갖가지 항암제의 개발, 방사선과 외과적인 기술의 발전으로 해서 얼마전까지만 해도 비관적이었던 간암치료가 점차 서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한마디로 간암이라고 하지만 간암에도 여러 종류가 있다. 간암 가운데 가장 흔한 것은 간실질세포암이다. 다음이 膽道上皮세포암이고, 드물기는 하나 이들 두 가지가 혼합된 형태가 있다.

이 밖에 肝에 생기는 악성腫瘍으로 여러 가지가 있다. 그중 가장 흔한 것은 上皮性 악성腫瘍.

통계적으로 간실질세포암은 담도상피세포암의 5 배에 이른다. 특히 간암은 남자에게 많아 남자와 여자의 발생율의 비는 간실질세포암이 6

대 1, 담도상피세포암이 2 대 1 을 보인다.

간암의 발생빈도는 지역과 인종별로 큰 차를 나타낸다. 간암 발생이 가장 많기로 알려진 것은 아프리카의 반투族. 전체 암의 50%에 해당할 정도로 흔하다. 그러나 歐美에서는 剖檢例의 0.2%안팎에 불과하고, 아프리카와 극동·동남아 일대는 1%가 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와 日本은 간암 발생율이 전체 암의 7%로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다.

간암의 원인은 무엇일까. 간암 역시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원인이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없다. 그러나 간암으로 유도하는 여러 원인이 밝혀져 있다.

땅콩 즐겨도 잘 걸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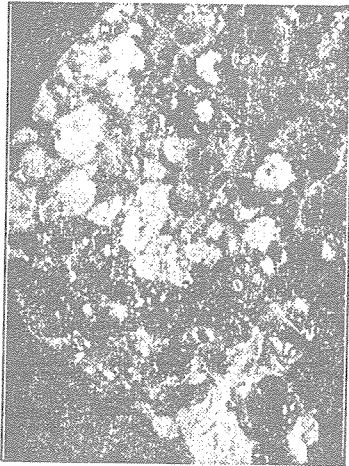
간염의 원인 바이러스가 간암과 관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해 왔다.

이같은 생각은 아데노바이러스를 동물에 감염시켜 간암을 발생시키는 실험에 성공한 후 더욱 뚜렷해 졌는데, 실제로 肝炎 후에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肝硬變症 특히 壞死後性간경변을 갖고 있고 그 대부분이 血清肝炎 원인 바이러스와 관계가 있는 간염 B 抗原이 血中에 나타난다. 그러나 간염과 관계없는 간경변에서도 간암이 자주 나타나므로 (20%) 간경변에서 오는 간암이 반드시 간염 바이러스와 관계가 있다고 간염 바이러스와 관계가 있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

음식물 속에 간에 대한 발암물질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아스파라질루스라는 곰팡이에서 나오는 아플라톡신이라고 하는 물질이다.

이 곰팡이는 흔히 땅콩에서 발견되며 땅콩을 즐겨 먹는 사람에게 간암이 잘 생긴다고도 한다. 한 때, 우리나라 된장에도 이 물질이 있다 해서 문제가 된 일이 있지만 몸에 해로운 정도로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음식물 가운데 간암과 연관을 맺는 또 다른 물질로 나이트로스아민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 이 물질은 고기 통조림 등에 防腐劑로 첨가된 나이트라이트가

몸 안에서 아민과 결합해서 만들어진다. 또한 최근엔 피임제가 發癌물질이 아닌가 해서 의심을 받고 있다. 그러나 피임제에 의한 간암발생은 아직은 의심스러우며 발생빈도 또한 문제가 되지 않을 정도로 낮다. 의료용으로 사용되던 放射性同位元素인 토륨製劑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많은 肝디스토마 감염도 肝癌과 관계가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암중에 침식된 肝의 절단면이다. 흰 부분이 암종이다.

出血性 腹水 나타나

또, 비닐공장서 일하는 사람이 폴리비닐 클로라이드를 흡입하면 肝에 악성 血管內皮腫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한다. 한편 간암은 가족적으로 발생하는 경향이 커서 遺傳的素因도 생각되고 있으나 분명치는 않다.

간암환자는 처음 전신쇠약증세가 그리 크지 않으나 말기에 가면 갑자기 커진다. 발열증세는 별로 없고 모든 경우 간이 커져 아주 단단하게 만져진다. 통증이 심한 경우는 별로 없고 대개

는 바른쪽 위 腹部에 무췌한 불쾌감과 소화불량이 함께 온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심한 동통이 나타나기도 한다. 특히 간경변을 오래 앓던 환자가 갑자기 심한 동통이 생기면 肝癌으로 의심해야 한다. 또 간이 너무 커져 호흡곤란을 일으키기도 한다. 절반 이상의 환자에게 腹水가 나타난다. 이 腹水는 흔히 出血性이다. 때로는 食道靜脈瘤가 터져 吐血 또는 下血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같은 증세가 반드시 간암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진단엔 세심한 주의를 해야 한다. 간암과 혼돈하기 쉬운 질병으로 肝膿瘍, 특히 우리나라에 흔한 아메바성 간농양이 있다. 이들 간농양은 앞서 설명한 간암의 증세와 비슷한 점이 많을 뿐 아니라 肝走査像으로도 감별이 안될 때가 많다. 따라서 간암과 간농양의 진단은 경험있는 의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早期發見

肝癌은 아직 根治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조기에 발견, 적절한 치료를 하면 상당기간 생명을 연장시킬 수는 있다.

생명연장을 위해 수술로 암종을 도려내 버리는 방법이 있다. 수술은 아직 암종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 않든가 간경변과 합병되지 않은 소아간암 등에서 효과를 보았다는 보고가 있다. 또 腫塊에 들어가는 動脈을 잡아 매서 효험을 보는 수도 있다. 항암제를 局所血管에 주입하는 방법도 시도되고 있다. 간암의 치료는 요즘 이같이 여러 가지 치료법이 꾸준히 계속 연구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은 만족할 만한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렇긴 하지만 멀지 않아 간암도 완전히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리리라 본다.

중단없는 정화운동 복지사회 초석된다